

이영희 깨어나기 위한 춤

Lee Young Hee Dance Comp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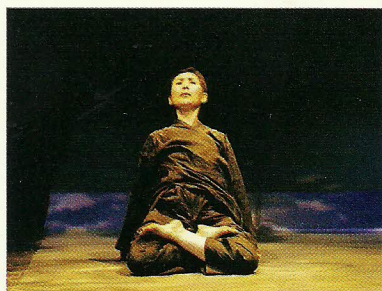
모래주머니

Sand Bag



2000. 6. 8▶9(목·금) 늦은7:30 / 경성대학교 소극장

■ 후원 : 경성대학교, 경성대학교 문화부 ■ 기획 : 예술공연 기획 아틀



모래주머니 Sand Bag

새 천년의 벽두에서 현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목표로
그토록 빨리 질주하고 있는 것인가.

삶의 긴 여정 속에서 잠시 일체의 욕망을 끊어버리고
나와 접하는 모든 현상을 물음하여 깊숙히 우리 삶을
세세히 들여다보면 우주의 주인인 양 오만한 나는
온갖 물질에 대한 욕망과 권력· 명예· 감각적 쾌락
(애욕)에 대한 끈질긴 집착과 소유욕으로 가득차
있음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온갖 존재의 근원은 무엇
이며 그것 존재들로 인해 일어나는 끝없는 고통은
또한 무엇인가.

존재와 의식으로 인해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고통은
어디서 온 것이며 그것을 명쾌하게 없애 버릴 수는
없는 것인가.

우리는 存在一般을 고정된 어떤 본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의심없이 인식해 왔다.

그러나 모든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매개
되어 원인에 따른 결과가 생길 따름이다.

따라서 존재와 온갖 물질에 대한 견잡을 수 없는
욕망과 끈질긴 집착이란 소유욕이 매개되어 결국
크고 작은 재앙인 고통이란 결과가 따르게 된다.

더욱이 존재와 온갖 물질의 쌓임도 시간의 진행에
따라 반드시 모래처럼 해체되어 흩어져서 소멸된다.

이러한 <참>을 자각할 때, 우리의 삶은 욕망과 집착
에서 벗어나고 고통으로부터 떨어져 마음은 고요
하여지고 편안하여 환희와 큰 자유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대본·안무 : 이영희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지 도 : 김은영

음 악 : 인도 민속음악 타브라 연주 편집

무대미술 : 전해원

의 상 : 김대숙

기 획 : 전현철

무대감독 : 윤주련

조 명 : 김훈석

음 향 : 양윤선

무대보조 : 권정희, 김혜정, 박은지, 오미경, 오소연, 최세미

출 연 : 김은영, 김도연, 박현정, 윤성화, 이창규, 계나리,

류호정, 장수임, 이영희



이영희(李榮熙)

그는 1955년 12세에 무용을 시작하였다. 경희대학교 무용학과와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68년에 문화공보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신인예술상 무용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같은 해 제9회 세계 멕시코 올림픽때는 문화공보부가 파견하는 한국민속무용사절단 단원으로 멕시코, 미국, 일본 순회공연에 참가하였다. 그후 인천시립무용단 상임 안무자를 거쳐 대학교에 재직하면서 춤의 의미성 없는 동작나열과 인위성을 비판하고 무위적 자 연출 개발을 위한 새 감각의 현대 한국춤의 새로운 창작무대를 발표해 왔다. 그는 동양사상에 뿌리를 둔 명상과 기공, 의식의 깨어남을 위한 관찰수행인 Vipassana Meditation 수련을 통해 순수창작 작업의 가치관을 재정립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의 작업의도는 소유를 목표로 한 예술행위의 허구성을 부정하며 전통춤 미학과 동양적 원형질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다. 또한 그가 항상 관심을 갖는 주제선택은 우리 주변에 있는 온갖 존재의 근원에 대한 깨달음(인간실존, 삶과 죽음, 물성의 존재, 자연과 우주, 인간성 상실, 환경오염)에 대한 제 문제들을 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주제전달을 위한 표현양식은 정적인 명상적 행위로 무위적 몸짓의 초자연성에 접근한 자유로운 형식의 새로운 창안을 항상 강조한다. 뿐만아니라 인성, 대사, 극, 퍼포먼스, 영상을 포함한 과격하고 충격적인 총체예술로서의 신표현주의 경향을 띄기도 한다. 그는 단독무대인 솔로로 97년에는 독일 함부르크 문화부 초청으로 FABRIK극장에서 공연 했고 KAIFU 아트 센터에서는 퍼포먼스를 99년 구소련 ODESSA에서는 의식의 깨어남을 인식하기 위한 구도적 춤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때로는 수십명의 무용수를 등장시키는 우리 마당춤 형식의 극무용 등을 자유롭게 형상화하기 위해 동서양 창조 형식의 경계를 넘나들며 탐구하여 현대 한국춤, 기공춤, 선무용 등의 새로운 영역을 독창적으로 꾸준히 다져오고 있다. 현재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 새암춤회 예술감독으로 있으며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 러시아, 일본, 동남아 등에서 작품을 공연하였다.

LEE YOUNG HEE

She started to learn to dance in 1955. She graduated from the Dance Dept. of the Kyoung-Hee University, and received the M.A at the Graduate School of the Education in Chung-Ahng University. She won the gold prize of the New Artist Award of Korea in 1968. And she participated in the Performance tour at Maxico, USA, and Japan as a member of the Envoy Group of Korean Folk Dance to the 9th Olympics in Maxico dispatched by the Department of the Culture and Public Inform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n, taking roles as the standing choreographer at the Incheon City Dance company and a lecturer at the universities, she's been criticizing the meaningless cites of motions in dance and the artificiality of dance, and has been announcing the creative stage of the modern Korean dances in new image. She is now concentrating confirming the sense of value about the pure creation activity by means of meditation and chi-gong, based on the oriental ideology, and observing meditation for awakening the consciousness. She tries to negate the fabricity of the activity for possession and firmly sticks to the pattern of the Korean traditional dance. She is interested in and chooses the true value of the human, the life and the death, deprivation of humanity, existence of the physical matter, Nature and Universe, and Environmental pollution. She expresses the themes by means of static meditational activity, human voice, speech, play, performance, film, extreme action and her performances have a tendency of radical and shocking neo-expressionism. and she performed a solo performance at FABRIK theater and another performance at KAIFU art center invited by the Department of Culture of the German government. And she researchs oriental and occidental expressing pattern by ocasionally concreting lots of patterns of dance such as theatrical dance assorted as open space dance performed by several tens of dancers. By such efforts She establishes her own unique area in Korean modern dance, Chi-gong dance, meditation dance. Now she is a professor of the dance department, the college of art, Kyoung-Seong University and the art director of Sae-Arm dance company. And she's been performing in a lot of countries including the US, Europe, Japan and South-east Asia.



김은영

-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 '95 신인 무용 콩쿨 한국전통무용부문 금상
- '97 새삼정기공연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안무·출연외 다수 출연



김도연

-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졸업
- '98 과천세계마당극축제 「生命, 바다풀이」 외 다수 출연
- '99 전국창작무용경연대회 한국무용부문 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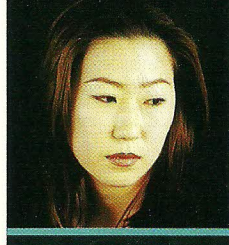
박현정

-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재학
- '99~2000 「대만 카우송 2000 기와 북 예술제」 외 다수 출연
- 2000. 5. 부산신인동인춤마당 「어머니의 방」 안무·출연



윤성화

- 경성대학교 대학원 재학
- '97 중국 길림 예술학원 초청공연
- '98 과천세계마당극축제 「生命, 바다풀이」 외 다수 출연



계나리

- 경성대학교 졸업
- '98 과천세계마당극축제 「生命, 바다풀이」 외 다수 출연
- '99~2000 「대만 카우송 2000 기와 북 예술제」 외 다수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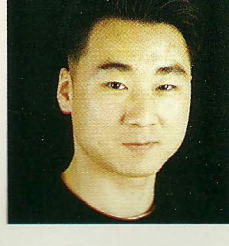
류호정

- 경성대학교 졸업
- '99 KBS무용 콩쿨 한국무용창작부문 금상
- '99~2000 「대만 카우송 2000 기와 북 예술제」 외 다수 출연



장수임

- 경성대학교 졸업
- '98 과천세계마당극축제 「生命, 바다풀이」 외 다수 출연
- '99~2000 「대만 카우송 2000 기와 북 예술제」 외 다수 출연



이창규

- 경성대학교 재학
- '97 대구 국악제 무용부문 금상
- '99~2000 「대만 카우송 2000 기와 북 예술제」 외 다수 출연

■ 공연예고 : 본 작품은 민족춤제전에 초청공연 됩니다. (2000. 6. 14 서울문예회관)
 ■ 본 공연은 2000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비로 조성되었습니다.